

# 제주도 여성 문화에 관한 고찰

- 가족과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송 성 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박 정 희

박정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제주도 여성 문화에 관한 고찰

- 가족과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

박 정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송 성 대

산업화, 정보화 및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의 특이성이 희석되어 가고 세계화, 국제화의 외침 속에 국적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바로 이 때에 제주도의 전통 문화, 그 중에서도 여성문화를 찾아 정리하고 다듬는 일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여성”,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가족생활과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제주 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향토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 여성 문화에 해당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족과 결혼생활에 해당하는 것을 추출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고, 1900년대 초부터 제주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 주로 나타난 문화현상을 다루었다.

제주도는 반도부와 다른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사건으로 특이한 생활양식을 낳았다. 일찍부터 여자가 밭농사와 잠수 등으로 생산 활동을 주도하였고, 한 울타리 두 살림과 같은 분가제도, 마을내혼, 외가친족과 처가친족과의 긴밀한 관계, 반도부와 다른 혼례문화와 고부관계, 첩제도, 암창개 등의 독특한 여성문화를 형성하였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문화적 특이성이 희석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잊어버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전통문화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계승·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전통의 계승이란 자체가 해로운 것은 버리고 이로운 것은 이어가며 새롭게 적용하는 부단한 선택과 창조 과정이다. 그러므로 전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선택하여 전승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제주의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리 교과에 향토 문화 단원을 두고 내용을 체계화하여 후세들에게 제주도의 전통문화(여성문화 포함)를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대 간의 문화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둘째, 전통 문화와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정확대가족의 채택이나 제주의 전통 노동복인 갈옷이나 메밀로 만든 빙떡의 대중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지나친 상업 위주의 문화 축제를 지양하고, 체험 위주의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연과 역사, 생활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공동체의식과 더불어 제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넷째,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내 고향의 구석구석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가 지녀야 하는 문화 정체성을 찾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3. 연구 동향 .....	3
II. 가족생활과 여성 .....	6
1. 여다의 섬 .....	6
2. 해녀의 생산 활동 .....	9
1) 해녀의 특성 .....	9
2) 해녀 사회의 민간신앙 .....	14
3. 분가제도 .....	17
1) 한 울타리 두 살림 .....	17
2) 분가 형태 .....	20
4. 외가친족 및 처가친족과의 관계 .....	21
1) 마을내혼 .....	21
2) 친족호칭 .....	25
5. 여성의 경제권 .....	27
III. 결혼생활과 여성 .....	32
1. 혼례문화 .....	32
1) 사주고남과 이바지 .....	32

2) 가문잔치와 사돈잔치 .....	35
3) 혼수 .....	37
2. 고부관계 .....	38
3. 첩제도 .....	40
1) 첩의 존재 요인 .....	40
2) 첩의 사회적 지위 .....	43
4. 이혼과 재혼 .....	45
1) 이혼 .....	45
2) 재혼 .....	49
5. 암창개 .....	52
IV. 결론 및 제언 .....	54
참고 문헌 .....	57
〈Abstract〉 .....	60



## 표 목 차

〈표 1〉 제주도와 전국의 성비 비교(1925~1966) .....	6
〈표 2〉 제주도의 연령별 성비 추세(1925~1966) .....	7
〈표 3〉 제주도 잠수표 .....	11
〈표 4〉 부조 양상 .....	30
〈표 5〉 잔치 과정 .....	36
〈표 6〉 혼수의 변화 .....	38
〈표 7〉 각도별 결혼과 이혼 및 결혼건수에 대한 이혼건수의 백분율(1929년) .....	46
〈표 8〉 제주, 전국의 이혼율, 1946~1966 .....	47



## 사 진 목 차

〈사진 1〉 제주도의 해녀군단 .....	10
〈사진 2〉 해녀의 아기와 애기구덕 .....	13
〈사진 3〉 해녀굿(잠수굿) .....	15
〈사진 4〉 마라도의 할망당 .....	17
〈사진 5〉 제주도의 고팡 .....	18

## 그 립 목 차

〈그림〉 제주도의 완전분리형 전통살림집 .....	19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반도부와 다른 지리적 조건으로 제주는 특이한 생활양식을 낳았다. 제주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부인 북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열도 그리고 한반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태평양 연안의 여러 나라와 아시아 대륙을 연결시키는 거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치의 특징은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임과 동시에,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은 고유문화를 형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곧 섬이 갖는 개방성과 폐쇄성이 공존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sup>1)</sup>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복판에는 1,950m의 한라산이 우뚝한데, 이 산이 완만히 뺨어내려 바다로 이어지는 해안가에 많은 마을들이 들어서 있다.

자주 태풍이 불어제치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비 내리는 시간도 길다. 제주도의 지표는 대체로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이루어졌다. 내리는 빗물은 흔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흘러가다가 바닷가에 이르러 솟아난다. 따라서 마을 대부분도 해안선을 따라서 들어섰으며, 혈관처럼 뻗어 내린 많은 소하천들은 거의가 역수같은 비가 쏟아져야 갑자기 흘러넘치는 이른바 건천이다.

논이 드물고 밭농사를 치러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런 까닭에 제주도의 여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다시피 하였다. 밭농사는 힘을 요하는 밭갈이를 제외하면 남성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남성들도 보리 베기 등 일손을 거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밭농사에서 그들의 전담 역할은 밭갈이에 불과하다고

---

1) 김혜숙(1993),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pp.2-3.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들은 농사의 주책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잠수 활동까지 떠맡아 경제 체계의 주요 부분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여성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자신감은 남성에게 경제적 의존심을 그만큼 덜어줌으로써 철저한 자립심을 기르는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육지의 논농사 지역에서는 계절적으로 많은 노동력의 집중적 투입이 요구되므로 가족의 크기가 대가족일 때 노동력 확보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제주도는 밭농사 위주이기 때문에 소규모 가족 단위가 생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 가족은 산업화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핵가족을 유지해 왔다.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가족형태라 생각한다.

핵가족 형태에서는 가족생활이 부부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교적 수평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가족 내 여성의 지위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자율권이 있다.

제주도의 전통문화는 탐라국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기마다 그 나름대로의 개성을 띠고 나타났던 문화 현상들을 관류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느 한 시기의 문화 현상을 외세에 의한 강점 문화, 무역의 항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입된 반도부와의 교류 문화, 풍랑과 난파에 의해 우연히 표류해 들어온 표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탐라의 풍속·신앙·언어·물질·생산·예능 등으로 나타나는 전통문화는 자생적인 생활문화에다 북방 또는 남방으로부터 흘러들어 온 문화들을 수용하면서, 반도부와 다른 제주의 전통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sup>2)</sup>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럴 때면 자연 속에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거나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을 떠올릴 때가 많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바로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

2)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pp.40-41.



산업화, 정보화 및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의 특이성이 희석되어 가고 세계화, 국제화의 외침 속에 국적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바로 이 때에 제주도의 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여성문화를 찾아 정리하고 다듬는 일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여성”,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가족생활과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제주 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향토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기존문헌자료를 통하여 제주도 여성의 전통문화에 해당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족과 결혼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을 추출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둘째,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주민과의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화는 1900년대 초부터 제주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 주로 나타난 문화현상에 국한시킨다.

## 3. 연구 동향

최재석(1984)<sup>3)</sup>은 제주도의 한 촌락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방학을 이용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의 유형, 가족의 역할구조, 잠녀가족의 권력구조, 혼인의례, 이혼과 재혼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3) 최재석(1984),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김혜숙(1993)<sup>4)</sup>은 사회 조직원리의 하나인 혼인 제도를 연구하면서 혼인 의례, 이혼, 통혼권 등의 분석을 통하여 제주도 가족과 친족의 성격을 구명하고 제주도의 사회 구조 전반을 이해하는 모형을 찾아내었다.

이창기(1999)<sup>5)</sup>는 제주도의 인구 및 가구와 가족제도로 나누어 인구성장과 인구구성, 인구이동 및 가구의 크기와 가구구성, 가족제도의 형성배경 및 가족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송성대(2001)<sup>6)</sup>는 지리적 공간상에서 지역마다 지니고 있고, 또한 지녀야 하는 문화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 규명하며, 또 그 구조와 기능, 의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문화의 원류 찾기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로 표상할 수 있는 제주 선민들의 정신으로 해민정신을 들었다.

제주도 여성의 이혼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이혼율 추세와 이혼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삼인(1985)<sup>7)</sup>, 이태영(1981)<sup>8)</sup>, 권귀숙(1998)<sup>9)</sup>의 연구 등이 있다.

제주도(2001)<sup>10)</sup>는 기존의 제주여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족과 결혼생활”, “속담으로 만나는 제주 여성어”, “제주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노래에 나타난 제주 여성”, “제주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문화영웅으로서의 여신들”로 주제를 나누어 제주여성문화 전반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밖에 제주도(1993, 1994)<sup>11)</sup>는 세시풍속, 통과의례, 전승 연희 등 제주의 민속에

---

4) 김혜숙(1993), 전개논문.

5)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6)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7) 한삼인(1985), “이혼에 관한 연구 II ; 제주도에 있어서의 이혼율과 재판상이혼에 관한 실태분석” 제주대사회발전연구.

8) 이태영(1981), “한국의 이혼율 연구”,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9) 권귀숙(1998), “제주도 이혼의 구조적 원인 분석”, 한국가족학회.

10) 제주도(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총서8, 제주도.

11) 제주도(1993), 「제주의 민속」 I, 제주도(1994), 「제주의 민속」 II, 제주도.

관하여 정리 하였으며, 제주도교육청(1996)<sup>12)</sup>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의·식·주, 생산 기술, 통과의례·민간신앙, 세시풍속·민속놀이, 민속공예, 민요, 방언·속담, 설화, 유적·유물로 나누어 향토교육자료를 만들었다.



---

12) 제주도교육청(1996), 전게서.

## II. 가족생활과 여성

### 1. 여자의 섬

제주의 결혼풍습이나 가족생활은 한국 전통가족의 모습과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가부장제 사회이면서도 실제 생활내용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컸던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sup>13)</sup>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선 여자의 섬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음으로써 가족이나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은 곳이다.<표 1> 참조)

<표 1> 제주도와 전국의 성비<sup>14)</sup> 비교(1925~1966)

년도	제주	전국
1925	86.6	104.65
1930	85.4	103.58
1935	83.6	103.05
1940	87.5	101.12
1944	85.7	99.38
1949	82.08	102.10
1955	108.06	100.03
1960	87.41	107.79
1966	90.92	101.44

자료 : 통계청

1955년도의 성비가 다른 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생기면서 현주조사인구에 의해 군인이 포함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예외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 제주도(2001), “가족과 결혼생활”,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총서8, 제주도, p.15.

14)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출생 시의 자연성비는 인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105 전후를 기록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약 5% 정도 많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성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이다.<sup>15)</sup>

<표 2> 제주도의 연령별 성비 추세(1925~1966)

	1925	1930	1935	1940	1944	1949	1955	1960	1966
0-4	104.6	102.5	102.9	106.8	104.3	99.1	112.6	104.4	103.0
5-9	109.1	105.2	104.4	107.8	106.6	99.1	103.9	103.5	105.3
10-14	100.6	101.8	105.6	108.6	108.6	103.5	107.7	106.1	104.2
15-19	78.5	82.6	90.5	86.5	84.0	84.0	124.9	114.9	110.7
20-24	70.3	69.4	70.3	68.0	60.4	67.1	78.2	111.4	119.5
25-29	70.0	66.6	64.2	62.4	57.1	68.3	79.2	89.9	103.4
30-34	75.2	69.9	66.2	64.6	57.8	66.8	74.3	69.3	97.5
35-39	80.2	74.9	71.9	72.0	67.3	63.2	71.2	61.2	70.8
40-44	84.5	80.6	78.6	77.6	75.2	65.6	61.4	65.3	61.8
45-49	80.3	80.1	82.0	82.5	84.5	70.0	64.8	59.8	64.6
50-54	85.2	84.5	86.0	83.5	83.4	74.8	65.0	60.2	57.9
55-59	79.2	78.7	80.1	83.7	80.0	72.2	66.9	60.0	57.3
60-64	77.3	78.5	81.3	77.5	76.3	72.8	65.9	60.5	56.0
65-69	76.0	75.4	76.9	75.5	76.3	68.6	63.6	56.5	53.1
70-74	66.0	66.2	67.8	71.4	74.0	64.0	62.1	58.1	51.0
75+	57.8	57.6	58.7	63.6	63.7	55.5	53.5	50.1	44.2

자료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나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p.76에서 재구성함.

※ 1955년의 수치는 군인들을 상주지로 환원시켜 재집계한 것임(전체 성비 88.7)

그런데 <표 2>에서 보듯이 제주도에서는 1925년부터 1949년까지 전 기간을 통해서 청장년층의 성비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년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성비가 갑자기 낮아지는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은 50세 이후보다도 더 낮은 성비를 기록하고 있어서 제주도 인구구조의 한 특징을

15) 이창기(1999), 전계서, p.79.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 연령층의 남성인구 결손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주된 원인은 일제시대의 과도한 도외이출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하의 도외이출과 4·3사건에 의한 희생이 참으로 오랫동안 제주도의 인구구조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여다의 섬 이면에 숨겨진 이런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래 여다(女多)란 제주의 남자들이 바다로 나가서 어로작업 중 많이 조난, 사망하여 여자가 수적으로 많았던 데 연유한다. 어쩔거나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1950~60년대에 남성들의 외도나 취첩 현상을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선별적인 사회적 인구이동 외에 잦은 해난 사고, 빈번히 일어났던 민란, 근세 이후 일본으로의 출가, 태평양 전쟁 및 4·3사건이나 6·25전쟁으로 인해 남성 인구의 사망, 행방불명 및 지역적 이동이 많았고, 전쟁 이후에도 복구사업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남성들의 육지 진출이 잦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는 제주의 생활환경이 각박하여 여자들도 남자와 함께 일터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서 붙여진 측면이 더 크다. 또한 여다(女多)는 인구통계의 비교 결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제주 여성들이 근면하게 일한다는 비유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어획하는 해녀(海女)는 여성들이 바다로 나가서 일하는 여다(女多)의 섬 제주를 표상하는 이름이기도 하다.<sup>16)</sup>

A. A. Pieter 목사는 1899년 “Korean Repository”에 기고한 글에서 “제주도는 한국의 시실리이며, 여성들은 (조선반도의)육지 여자들보다 더 튼튼하고 훨씬 잘 생겼다. 길거리에서는 남자 하나에 여자 3명이 같이 있게 된다”라고 하여 제주도가 여자 천국임을 말하고 있다.<sup>17)</sup> 이것은 제주 여성들의 바깥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었나를 짐작하게 한다.

16) <http://jejugo.netian.com/jejudo/je13.htm>

17) 김영돈(2000), 제주도 제주 사람, 민속원, p.40.

## 2. 해녀의 생산 활동

### 1) 해녀의 특성

제주도는 몽고의 30년간의 통치, 왜인의 무단한 침입, 조선왕조 500년간의 잦은 민란, 그리고 해방 후 4·3사건에 이르기까지 시련이 이어졌지만 도민들의 생활 의지는 줄기쳤다. 해녀(잠수<sup>18)</sup>)는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의연히 견재하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비바람과 성난 물결을 이겨내는 굳건한 여인들이다. 망망대해 속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잠수들의 싱싱한 모습들은 한라산의 딸들이요, 제주도 근로의 여신이다.

이 세상에 사람살이의 직종이야 갖가지로 술하지만, 잠수(해녀)는 가냘픈 여인들이면서도 창망한 바다를 생업의 장으로 삼아 깊숙이 무자맥질하면서 해산물을 캐어낸다는 점이 색다르다. 이러한 나잠어업은 제주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확실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들의 어획물들은 판로가 넓다. 따라서 해녀들은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을 팔아서 의, 식, 주를 해결했고, 식용으로 이용해 왔다. 특히 옛날부터 본도에서 생산되는 미역은 범선에 실리어 목포, 강경, 해남, 군산 등 상업도시를 그 판로로 했다. 전남북과 충남북 지방 이외에도 중국인에게까지 본도의 미역은 판매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는 조합에 위탁 판매하여 왔다.<sup>19)</sup>

해촌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에 의한 소득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가정소득의 1/3에 해당했다.<sup>20)</sup> 또한 제주도의 잠수들은 도내에만 머물지 않고 육지부 및 일본의 여러 지방으로 진출하였으며, 우수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곳곳에서 실권을 장악해 왔다. 장기간 출가할 때는 선중에서 기거하거나 해안의 조그마한 집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근검절약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돌아 올 수가 있었다. 1936년

---

18) 강대원(1973),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p. 34. 여자로서 바다 속에 들어가 해조류 및 패류를 잡는 사람들을 잠녀라고 한다. 여기서는 잠수, 잠녀, 해녀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19) 강대원(1973), 상계서 p.91.

20) 송성대(2001), 전계서, p.418.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출가 잠수는 한 해 동안에 3,360여명으로 추산된다.

제주 해녀들은 바닷물속 15~20피트<sup>21)</sup>에서 물질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재래복을 입고도 70피트(약 21m)까지 무자맥질한다. 물질이 극성스런 바닷가 마을에서는 열두 길(약 22m)까지 들어가는 해녀도 드물지 않다. 물 속 22m까지 들어가서 2분 남짓 견딘다.<sup>22)</sup>

제주의 해녀는 임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삭임에도 생계를 위해 무자맥질한다. 아래 <사진 1>에서 보면 임신한 여자도 여럿 보인다.



<홍정표 사진>

<사진 1> 제주의 해녀군단

자료 : 제주도(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총서8, 제주도, p.117.

물질에 열심이다 보면 제대로 진통할 겨를도 없이, 혹은 배 위에서, 혹은 집으로

21) 1피트는 0.3048 m

22) 김영돈(2000), 전개서, p.227.



돌아오는 축항에서, 혹은 길가에서 애를 낳는다. 배에서 낳았으니 ‘배선이’, 축항에서 낳았으니 ‘축항둥이’, 길에서 낳았으니 ‘길둥이’, 또는 ‘길둥이’란 별명을 지닌 이들이 해녀 마을마다 드물지 않다. 또한 일본의 해녀보다도 추위에 강하며, 애를 분만한 직후에도 사철 조업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다. 월별 작업과정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제주도 잠수표

월 별	잠수일수	일별잠수회수	채취물
1월	20일	2회	미역
2월	14일	2회	"
3월	28일	2회	"
4월	28일	2회	"
5월	28일	3회-4회	천초
6월	28일	"	"
7월	28일	"	전복, 소라
8월	28일	"	"
9월	15일	1회	"
10월	15일	"	"
11월	17일	"	"
12월	17일	"	"

자료 : 강대원(1973),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p.72.

제주도에서는 농번기와 해조의 채취기가 거의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여자들의 일손은 바쁘기만 하다. 그러나 아무리 여자들의 일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잠수가 중지되는 일은 없다.

7, 8월 잠수의 하루를 살펴보면, 잠수들은 밀물, 썰물 때는 밭같이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누군가 몸을 털고 일어나서 “바다로 가지” 라고 외치면 여기저기서 삼삼오오 때로는 수십 인의 잠녀들이 일어서서 바다로 달린다. 바다가 가까운데 있는 잠녀는 집에서 잠복을 입고 오는 게 보통이다. 집이 먼 잠수들은 바가지가 달린 망 속에 옷을 넣어가지고 나왔다가 바위 사이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잠수를 2회 혹은 3회(일반적으로 1회는 약 1시간 정도의 잠수 작업과 30분 정도의 휴식이며, 10월~2월은 1회 작업 시간이 30분 정도) 가량 하게 되면 벌써 해는 해상에서 넘실거린다. 잠수들은 현무암의 돌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온다.<sup>23)</sup>

제주도의 여자들은 강인하면서도 부지런하며 인내력이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밭일을 하는 것은 물론 바다에 나가 전복, 소라, 천초 등을 따서 가게를 꾸려 나가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근면한 기질은 제주도 여성들만의 특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해녀의 강인함과 근면성을 알 수 있는 속담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잠녀 얘기 나뉘 사율이민 물에 든다.

(해녀는 아기 낳아서 사율이 되면 바다에 들어간다.)

잠녀 애긴 사율이민 굴체에 녹저뉘 물에 든다.

(해녀가 낳은 아기는 사율이 되면 삼태기에 놓혀 두고 바다에 들어간다.)<sup>24)</sup>

이 이야기는 해녀의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 반드시 일해야 함을 뜻한다.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뜻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도 엄청난 일인데 육체적으로 고달픈 물질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 여성의 강인한 생활력을 짐작할 수 있다.

산모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갓난아기라고 해서 안정된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아기들도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며 스스로 알아서 자란 것 같다.

---

23) 강대원(1973), 상계서 p.40.

24) 제주도(2001), “속담으로 만나는 제주여성어”,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총서8, 제주도, p.108.

어찌 보면 현실적응력이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다. <사진 2>에서 보는 애기구덕은 제주도의 육아용 요람으로서 대나무로 짜서 만들었고, 해녀들은 아기를 이곳에 눕히고 물질하러 간다.



<홍정표 사진>

<사진 2> 해녀의 아기와 애기구덕

자료 : 제주도(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총서8, 제주도, p.109.

잠수가 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7, 8세부터 훈련을 쌓아 올려 고생한 끝에야 비로소 한 사람의 잠수로서 구실을 할 수가 있다.

해녀들의 물질 기량은 혈통에 따라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소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수련을 거듭함으로써 익혀나간다. 물질을 얼마나 능란하게 치르느냐에 따라 대체로 하군·중군·상군으로 구분한다. 계층 구분이 엄격해서인지 군(君)자가 쓰인다.

해녀들이 물질을 시작하는 연령은 개인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열일

곱 살을 전후하여 하군 해녀가 되면 자력으로 제 삶을 알뜰히 추스른다. 세월에 따라 익숙해져 가면 점차 중군이 되고 그 기량이 썩 뛰어나게 되면 상군이다. 그런데 해녀의 계층은 연령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얼마나 잘 치르는가의 기량 여부에 달렸다. 해녀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어서 상군이 되어서 소라 닷 섬, 전복 여든 섬을 잡고 풍족하게 살림을 살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적으로 해녀계층은 하군·중군·상군으로 구분하지만 상군 가운데도 특출하게 뛰어난 해녀를 대상군(大上軍)이라 한다. 물질이 극성스런 마을에서도 대상군해녀는 드물다. 대상군해녀는 해안마을의 왕자로 군림하면서 해녀집단의 부러움을 한몸에 모은다.

이런 해녀 계층은 해녀 사회의 온갖 집단규범을 낳는다. 탈의장이면서 불을 쬐는 <불턱>만 하더라도 <하군턱(하군불턱)>·<중군턱(중군불턱)>·<상군턱(상군불턱)>으로 나뉜다. 모든 해녀들이 같은 <불턱>에서 불을 쬐 경우라면 으레 연기가 덜 나는 자리에 상군해녀를 앉도록 모시는 게 불문율의 관행으로 뿌리내렸다. 이 <불턱>동아리에서 어린 해녀들은 물질의 요령과 사람 삶의 규범을 터득한다.<sup>25)</sup>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장이라 여겨진다.

## 2) 해녀 사회의 민간신앙

해녀사회의 신앙심의(信仰心意)는 농촌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두텁고 강력하다. 바다는 풍요로운 해산물을 선사해 주는 한편, 언제나 위험이 도사린 곳이어서 생명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거친 바다에서 안전 조업과 더불어 해조류와 패류의 풍부한 수확을 바라는 해녀들의 기원은 간절하며, 이 깊숙한 신앙심의는 해녀들에게 한결같이 배어 있다.

해녀사회의 민간신앙은 개인의례와 집단의례로 나누어진다. 개인의례로는 해마다

---

25) 제주도(1994), 상계서, pp.196-198.

음력 정초가 되면 생기복덕일(生氣福德日)을 택일하여 새벽에 바닷가로 나가서 빌거나 집안에서 치성하거나 <할망당>에 가서 비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그해 들어 처음으로 물질을 시작할 때, 개개인이 이른다<요왕(龍王)>에게 <지드린다>고 쌀을 한지에 싸서 남몰래 바닷속으로 던지면서 물질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빌기도 한다. 집단 의례로는 잠수굿(<사진 3>)이나 영등굿을 해녀마을 공동으로 치르는 경우다.



<김기삼 촬영>

<사진 3> 해녀굿(잠수굿)

자료 : 김영돈(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화보

집안에서든 바닷가에서든 치성하는 데에는 반드시 생기복덕일을 택한다. 심방을 빌거나 해녀들 스스로 메·사과·생선·돌래떡·삶은 계란·콩나물·고사리·제주등과 함께 한지에 쌀을 싸고 새벽에 바닷가로 향한다. 바닷가 바위 위 알맞은 곳에 자리를 잡아 제물을 진설하고 한 해 동안 물질을 치르는데 용왕할머님이 잘 보살피

어 무사고와 해산물의 풍요를 이룩해 주도록 간절히 빈다. 기원하고 나서 한지에 쓴 <지>를 용왕께 드리는 뜻으로 바닷속으로 던진다. <지드림>은 그해 들어 처음 입어하는 날, 또는 금채(禁採)했던 미역을 허채(許採)해서 처음으로 캐기 시작하는 날 치러지기도 한다. 또한 정성을 다하는 해녀 가운데는 한 달에 몇 차례 <요왕지>를 마련하여 물질 나갈 때 물속에 던짐으로써 용왕에 치성한다. <육지물질>, 곧 한반도 곳곳의 해안이나 일본·중국·러시아로 물질 나가서 첫입어할 때에도 <지드림>의 의례를 치른다.

<지>를 쌀 때에는 용왕을 위한 <요왕지>를 먼저 싸고 자신의 몫인 <몫지>를 나중에 쓴다. 쌀을 외부에서 사들이고 난 다음 이를 쓰기에 앞서 맨 먼저 떠서 <지>를 마련할 쌀로 정성껏 미리 비축해둔다. <요왕지>는 용왕할머니 몫인 <요왕할망지>와 용왕할아버지 몫인 <요왕하르방지>를 따로 마련함이 원칙인 듯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왕할망지>와 <몫지>만을 마련한다. <요왕지>와 <몫지> 외로도 그 무렵 가까운 바다에서 해녀의 사고가 있었을 경우면 액긋게 목숨을 잃은 해녀 몫의 <지>도 함께 마련해서 던지곤 한다.

용신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이어서 물질하다가 우연히 거북만 보여도 이른바 “요왕할망의 말쑥말쑥(용왕할머니의 네딸 가운데 제3녀)”로 간주해서 정중히 모실뿐더러, 어쩌다가 거북이 바닷가에 오를 때면 막걸리나 소라를 정성껏 대접하면서 기원하기도 한다. 거북은 “요왕부원국 삼체스 거북스제”라고 일컬어지듯이 용왕의 사자라고 관념한다.

해녀들 물질 소득인 해산물로 생계를 지탱하는 마라도 주민들의 경우를 보면 물질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로움을 비는 마음이 절실하고 할망당 (<사진 4>)에 기대는 마음도 유별나다.

오늘날에도 마라도 주민들은 극성스럽게 이 신당을 섬길뿐더러, 외래인사들도 당을 찾아 정중히 배례하면서 원하는 일의 무사행통을 빈다. 주민들은 집안 식구들이 앓거나 불운한 일에 부딪혔을 때, 또는 해녀·어부들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빌 필요를 느낄 때면 부정기적으로 이 할망당을 찾으며, 달마다 7일, 17일, 27일에는 제물

을 마련 하고 치성한다.



<사진 4> 마라도의 할망당

자료 : 김영돈(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화보

마라도는 섬 해안이 대부분 단애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위험하지만 낙석사고가 없는 일, 해녀들의 물질 때 사고가 별로 없는 그 모든 은덕을 할망당 당신의 보살핌으로 돌리고 있다.<sup>26)</sup>

### 3. 분가제도

#### 1) 한 울타리 두 살림

제주도에서는 분가현상을 가리켜 <술 가르다>고 한다. <술을 가르다>는 것은 경지와 가재도구의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더라도 안거리, 밖

26) 김영돈(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pp.141-145.

거리로 생활공간을 분할하는 것이다.<sup>27)</sup>

제주도에서는 경제권이 신부에게 주어져 있어야 살림살이가 시작되고, 분가를 해야만 혼인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여성 중심의 생활단위 분리는 울타리 밖으로 분가하지 않고도 취사와 경제권을 독립시켜 자신의 삶은 본인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즉 동거와 분리의 현명한 절충이 나타나고 있다.<sup>28)</sup>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자료사진>

<사진 5> 제주도의 고팡

자료 : 제주도(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도문화자료총서」 8, 제주도, p.301.

제주 농촌의 전통적인 가옥구조는 한 울타리 안에 안거리라고 부르는 안채와 밖거리라고 부르는 바깥채가 있는데, 두 가옥 모두에 정지(부엌)와 고팡(광)이 각각 있다. 안거리와 밖거리에 각각 정지와 고팡(<사진 5>)이 있다는 것은 식사를 제각각 할 뿐만

27) 최재석(1984), 「제주도의 친족조직」, p.31.

28) 제주도(2001), 전계서, pp.38-39.



아니라 경제 활동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한 지붕 밑이라 할지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따로 밥을 해 먹는다.



<그림 > 제주도의 완전분리형 전통살림집

자료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p.389.

위의 <그림>은 한림 귀덕리 조씨가로 안거리에는 분가 독립한 자식 세대가 살고 밖(밖)거리에는 은퇴한 노부부 세대가 산다. 정지라는 부엌은 물론 식량을 저장 관리하는 고창이 각기 있고 장독대 또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술을 갈라 살림이 분리되면서 시작되는 철저한 독립정신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엄격한 수직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런 분가 상태에서는 부모 또한 노동력이 있는 한 혼인한 자식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서로의 생활공간을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의 내적 생활에 통제나 간섭이 적어짐으로써, 오히려 갈등이 줄어들고 정서적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

70·80대의 노인들이 자녀의 부양을 거절하고 독립생활을 하는 모습은 여전히 목격되는 현상이다. ‘움직일 수 있는데 무엇 하러 자녀들의 집에 가서 불편하게 지내겠는가. 나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아야지’라는 노인들의 공통된 응답으로 구속당하기를 싫어하는 기질과 심리를 드러낸다.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독립하려 하며 끼니조차 마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자식의 부양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서 신세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사고는 자식에게조차 적용된다.

육지에서는 부모의 노동력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직계가족을 형성한다. 시어머니가 아주 고령이 되거나 사망한 후라야 안방과 광 열쇠를 며느리가 차지하나, 제주도는 혼인 즉시 공간의 독립, 경제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방물림이라는 것이 제주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sup>29)</sup>



## 2) 분가 형태

제주도에서는 장남도 그 부모가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서로 독립생활을 유지하면서 분가유형을 취한다. 부모의 능력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상 분리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거하는 현상은 제주도의 가족제도에 있어 분가의식이 철저한 독립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는 가족을 최소 생계단위로 분산시켜 그 규모를 가능한 줄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여성 중심의 경제 체제로 대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당히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육지와는 반대의 현상들로 나타난다. 나이든 시어머니는 밖거리로, 식구가 많아진 며느리네가 안거리로 옮겨가는 역현상도

29) 제주도(2001), 상계서, p.40.

생긴다. 가족주기로 볼 때 혼인 후 얼마 안 되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형성기의 가족을 어린살림이라 한다. 반면 확대기에 이르러 가족원의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게 되면 촌살림이라 한다. 식구수가 많은 촌살림은 안거리에, 갓 혼인한 아직 어린 살림은 규모가 작은 밖거리에 거주한다.

점차 촌살림은 가족 축소기에 접어들게 되고, 밖거리에 사는 아들 부부 이외의 자녀들은 혼인하여 울타리 밖으로 독립해 나가게 된다. 반면 밖거리의 어린살림이었던 아들부부가 가족 확대기에 이르면, 대개 축소기에 이른 부모세대가 밖거리로 옮기고 촌살림이 된 아들부부가 안거리를 차지한다.

거주 장소의 교체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주인의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때 주거 형태상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 상하 서열의식은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부모세대가 밖거리로 옮긴다하여 그 권위마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수가 적은 쪽이 작은 공간에 기거하는 것이 관행화 된 사고방식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변화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안거리와 밖거리의 차이는 그 규모나 식구수의 크기에 따른 장소의 이동일 뿐 권력이동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아가 마당을 완충지역으로 삼아 정서적으로는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부모가족과 자식가족간의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는 육지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유지해온 핵가족의 전통에서 형성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4. 외가친족 및 처가친족과의 관계

### 1) 마을내혼

사회적 유대 형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혼권이란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범위와 집중도를 일컫는 것이다. 통혼 권역의 형성은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존전략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권역 파악은 여성의 혼입과 혼출의 자료가 되며, 생태학적 의미와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통

혼이 이루어진 양가의 지역적 거리 정도는 인척 관계와 외척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을내혼제를 취하는 사회라면 동일 마을 내에 친가, 외가, 처가(시가)가 함께 존재하며 보충적인 인지의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고, 마을외혼제라면 친인척간의 유대는 이와는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다. 통혼권 분석은 외가친족이나 처가친족과 어떻게 친밀도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 집단의 성격, 나아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제주 결혼과 가족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같은 마을에서 혼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락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고 각성이 모여 사는 부락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마을내혼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31)</sup> 마을 내혼은 육지의 농촌지방에도 존재하지만 도서지방과 같은 고립된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립성이 강하지도 않은 제주도의 마을에서 마을내혼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고립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제주도 특유의 혼인양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친구끼리도 사돈이 되는 등 같은 마을이나 이웃마을의 잘 아는 사람들끼리 사돈을 맺게 되어 독특한 제주 가족의 모습을 띠게 된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동네 친구의 부모가 장인, 장모가 될 수 있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친구의 부모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된다. 친구의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친구의 딸이 며느리가 된다면, 그 고부관계는 분명 전통 한국가족에서의 시어머니-며느리와는 다를 것이다. 처갓집 대사 시에 사위는 ‘손님’이 아니라 처남의 친구로서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사돈집 제사 참석이 가능한 것이고, 사돈이면서도 친한 이웃이므로 양 집안의 대소사에 관여하여 함께 도와주게 된다. 특히 복친인 근친이 별로 많지 않은 집안이라면 사돈이 마치 가까운 친척처럼 일을 거들게 된다.

동네사돈을 맺음으로서 같은 마을 안에서 친척과 인척이 함께 살다보면 결속의 장점

30) 김혜숙(1993),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p.149.

31) 신행철 외(1995),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p.52.

과 구속의 단점이 모두 노출될 수도 있다.<sup>32)</sup> 같은 마을 또는 인접한 이웃마을과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주의 마을이 육지 반촌과는 달리 대부분 한 마을에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각성바지 마을이기에 가능하다. 또한 마을의 규모가 비교적 커서 가구 수가 많으므로 같은 동네에서도 신랑과 신부를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내혼도 1960년대를 기점으로 근대화, 산업화에 따라 통혼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중산간촌에 비해 어촌에서의 통혼권 확산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섬이라는 폐쇄성 구조에서 보다 넓은 세계인 물이라는 개방성 사회구조에로의 이행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을내혼은 시집살이와 처가살이의 교묘한 절충이라 할 수 있다. 마을내혼은 여성에게 시집살이를 완화시키고 출가외인의 관념을 약화시켜 주었던 것이다. 반면 남성에게는 처가살이는 피하면서도 혈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좁은 사회에서 문증만이 아니라 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처가 쪽까지 넓힐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 남편 또는 시집에 복종적이거나 열등한 위치에만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평등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친척을 나타내는 독특한 켤당이라는 말이 있다. 켤당은 육지의 친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부계혈족의 친족과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아버지쪽 친족이면 성켤당 [父系親], 어머니쪽 친족은 외켤당 [外戚], 남자가 결혼해서 생긴 처가 쪽은 처켤당 [妻族], 여자가 시집을 가서 맺어진 친족은 시켤당 [媿家] 이라고 구분해서 쓴다.

좁은 지역에서 같은 마을 또는 이웃마을과의 혼인은 친척과 사돈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사람들은 사돈에 팔촌으로 걸린 켤당’이란 말을 곧잘 사용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고향마을을 밝히고 친척관계를 따지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얽혀졌든 사돈의 팔촌이라도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인근마을이나 같은 마을 안에서 혼사를 치르다보면 부찌사돈이 생긴다. 부찌사돈이란 한 집안에서 다른 어떤 한 집안으로 여성 두 사람이 혼인하거나 두 집안에서 서로

32) 제주도(2001), 전계서, p.68.

딸을 교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한 번 이상의 혼인으로 인해 사돈 관계가 중복되는 일이 왕왕 발생하게 된다.

친정에서는 육촌 자매간이었는데 같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어 시집 쪽으로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었다는 식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맺어진 두 가문의 혼맥은 같은 마을이나 인근 마을과의 연줄혼인에 따른 부찌사돈 관계망을 근친끼리 형성함으로써 독특한 권당이 되는 것이다.

성편, 외편 구분하지 않는 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일상생활에 강하게 작용하여 인간 관계나 사회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네혼사인 마을내혼이 잦다 보니 ‘마을 안에 매놈이 없어(마을 안에 완전한 남이 없어)’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관계라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을내혼의 혼인망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마을에 성가, 외가, 처가, 시가가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친정집은 물론 시집간 자매끼리 같은 동네나 이웃마을에 살게 된다.

제주 역시 부계사회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시집 권당과 상호작용의 빈도가 잦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친정 권당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딸을 사돈집으로 들여보내는 입장이므로 딸 가진 사람은 마치 죄인처럼 저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마을내혼에다 부찌사돈까지 겹치고 보면 집안끼리 서로가 딸을 주고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돈관계가 서로 대등하게 된다. 고부간 갈등이 육지 전통가족에 비해 적은 것도 통혼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어촌마을에서 나타난 사례처럼 사돈집이 울타리를 경계로 한 바로 옆집이라면 남편이 부인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시어머니의 며느리 구박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는 제주출신 재일 동포들이 타 지역보다도 많다. 재일 제주 출신 동포들의 고향사랑은 유별스러운 정도로 크다. 제주출신 재일 동포들이 일본 내에서의 강한 결속력도 결국 권당 의식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33) 제주도(2001), 전계서, pp.71-73.

## 2) 친족호칭

마을내혼 중심의 통혼권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혈족과 인척이 중첩되게 된다. 이는 곧 마을내혼에 따른 혼인망으로 지연과 혈연에 중복이 생김을 의미한다. 이 중복 현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어떤 용어들이 쓰이는가, 제주도에서 친척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켄당, 일가, 방상’ 등이 있다. 켄당이란 말은 친인척 모두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방상에는 ‘성, 외, 처, 시’ 등의 접두사를 붙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계친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일가는 성켄당 전체를, 방상은 그 중에서도 근친을 일컫는다는 차이만 있다.<sup>34)</sup>

제주에서는 친척에 대한 지칭이나 호칭에서 세대별 구별만이 뚜렷할 뿐 친족용어가 비교적 단순하다. 곧 손지(손자), 조케(조카), 성님(형님), 삼촌(삼촌), 하르바님(할아버지) 등으로 나누어지고 같은 세대에서의 구별은 거의 없다. 조부세대 이상에서는 남성이면 모두 하르바님이고 여성이면 할마님이다.

소위 ‘반촌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나 글을 아는 남성의 집안에서는 하르방이나 할망으로 호칭하지는 않는다.

부모세대에서는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백숙부모, 고모, 고모부 그리고 사촌 이상의 형제들인 숙항(종숙, 재종숙, 삼종숙)은 모두 ‘삼촌(삼촌)’으로 통칭한다. 즉 부모세대의 모든 친족원들을 성별이나 촌수에 관계없이 삼촌으로 칭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광복이후 무렵부터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에게는 순서 개념인 ‘큰·셋·말젯·죽은’을 붙이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 칭한다. 즉 큰아버지, 큰어머니 하는 식으로 부모의 형제자매에게는 형제서열만 구별될 뿐 아버지, 어머니가 붙고 있다. 부모의 세대에는 촌수로는 3촌이더라도 부모와 동격으로 보고 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5촌 이상은 실제 촌수에 상관없이 모두 삼촌(삼촌)으로 호칭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친족원을 나타내는 지칭어에서는 ‘5촌 삼촌’, ‘7촌 삼촌’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당숙, 재당숙 등에게 촌수를 구별하는 5촌, 7촌을 붙여 당

34) 김혜숙(1993), 상계논문, p.174.

사자를 구별하지만 촌수 뒤에는 삼촌을 붙이고 있다.

직접 대면해서 본인을 부를 때는 모두 삼촌으로 호칭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떤 삼촌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삼촌 앞에다가 촌수를 붙여서 ‘5촌삼촌’, ‘7촌삼촌’으로 지칭한다.

그러니까 3촌은 부모와 다름이 없고 5촌 이상이 되면 촌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삼촌으로 인식하는 즉 가능하면 친족원의 분류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를 통해 맺어진 친족원들 즉 외편켄당에 대해서도 성편켄당에서 사용되어지는 것과 차이가 없다. 다만 지칭어 앞에 ‘외’자를 붙이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실제 호칭에서는 ‘외’자의 사용을 기피한다.

성가(친가), 외가에 따라 삼촌이나 외삼촌의 구별은 곧 사촌의 범주에도 적용되어 ‘사촌’과 ‘외사촌’으로만 대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가, 외가, 처가[시가]가 한 마을에서 서로 얽혀서 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소속과 촌수를 따져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촌수 다음에 붙이는 ‘삼촌’의 의미는 숫자상으로는 3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개념이다. 촌수를 따진다면 5촌이나, 7촌으로 간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의 형제와 똑같이 삼촌만큼 가깝다는 뜻이다. 굳이 따져서 먼 촌수로 구별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식의 반영이다.

육지에서 쓰이는 아저씨라는 어휘를 제주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이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삼촌인 것이다. 삼촌이란 호칭은 친족용어에서 아주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촌수를 알 수 없는 친척이거나, 설사 친척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으로서 그냥 성님이라고 부르기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에게는 ‘삼촌’이라고 부른다. 남녀에 따른 구별이 없지만 남자삼촌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자삼촌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될 상황에서만 남성에게는 ‘소나이 삼촌(남자 삼촌)’, 여성에게는 ‘예펜 삼촌(여자 삼촌)’이라 하여 성별만 나타낼 뿐이다.

동네사돈은 부찌사돈을 낳게 되고 부찌사돈의 혼인망은 곧 동네사람들이 모두 사돈에 팔촌으로 걸린 썸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동네 어른은 모두 친척이나 다름없게 인



식되는 것이고 어른이면 모두 삼촌, 손아래 사람이면 아시나 조카로 부르게 된다.

부계혈족의 폐쇄적이고 좁은 집단만을 고집하기보다 친척과 인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폭넓은 켄당의 범주를 형성한다. 나아가 마을 내의 모든 사람이 친척이 아니더라도 동네 어른에게는 모두 삼촌으로 호칭하면서 동네사람 모두를 하나의 켄당처럼 여기는 강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sup>35)</sup>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의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퇴색된 지 오래되었고, 친척 간의 유대관계도 많이 약화되었다. 켄당 의식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거나 소외된 이웃이 생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통혼권이 달라지면서 켄당의식이 약해질 것은 당연할지 모르나 앞으로도 꾸준히 계승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 5. 여성의 경제권

제주에는 ‘동촌여자 앉았던 자리엔 풀도 안 난다’는 말이 있다. 특히 동부지역은 토지가 척박하여 옛날에는 여자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듬북(해초)이나 솔잎 한 짐 또는 쇠똥이라도 주워 와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여자에게 심하게 대한 이유는 남자에게 자질구레한 일은 시키지 않는다는 남성존중의 관념도 있었겠지만 남자만 믿고 살 수 없었던 환경이 그만큼 여자들에게 어려서부터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섬이라는 환경조건은 남성은 언제 바다에 나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인 것이고, 남성들의 높은 사망률은 남편만을 믿고 의지할 수 없으므로 여성들에게도 강한 노동경제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생활을 책임질 딸은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강하게 키워야만 했을 것이다.

딸들은 시집가지 전에도 바쁜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보고, 물 길어오기, 밭에 김 매기 등 집안 일은 물론이고 물질이나 고사리를 꺾어 돈도 벌어들이는 생산자의

---

35) 제주도(2001), 전계서, pp.74-76.

위치에 있었다. 부모들은 딸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결코 가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큰 딸이 번 것, 작은 딸이 번 것을 구분하여 따로 관리해준다. 그 돈은 시집갈 때 비용으로 하거나, 부지런한 처녀들은 노동으로 모은 돈으로 받을 사 재산을 형성하기도 한다.

여성, 특히 딸의 몫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 제주 가족의 남녀 평등성, 즉 여성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다.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든 극복해 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제주인들에게는 남녀를 막론하고 기력이 남아있는 한 노동에 의지해야만 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역할도 남성과 대등하게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증대되고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칠거지악이라든가 남녀칠세부동석과 같은 주자주의적 원리가 강하게 작용할 입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지형상 대규모의 집약농업 형태가 아니라 밭작물을 위주로 하는 자연적 조건에서는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이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심지어 해녀가족이라 하더라도 농사에 필요한 여성의 몫을 모두 감당하면서 물질을 하는 이중 삼중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그 역할에 걸맞게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뛰어난 노동경제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격적 특질 면에서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하여 그들 자신의 삶이나 가족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부부간의 권력구조에 있어 서로의 결정권이 거의 대등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부부관계의 저변에 남녀평등의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문을 위해 이른바 ‘귀먹어 3년, 눈멀어 3년, 병어리 3년’으로 시집살이를 해야 했던 전통사회의 여성과는 특질 간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난다. 주체적 삶의 의지를 자신에게 두려는 여성의 자의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의 강한 자의식은 고행이며 1인 가족이 된 여성노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한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한다.

제주여성들은 물질, 발일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고, 여성들의 강한 자의식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다.<sup>36)</sup>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강한 개인의식은 가계관리에 있어서도 가족원들이 수입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부가 주머니를 따로 하여 살아가면서도 별로 큰 마찰은 없어 보인다. 소를 판돈은 남편이, 보리나 콩 등을 팔아서 생긴 돈은 부인이 관리하면서 집안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남편이, 일상생활비는 부인이 제공한다. 어떤 계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면서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심지어 ‘부자간에도 범벅에 금을 갖는다.’는 속담도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그릇에서 범벅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으로 가운데 금을 그려 아버지가 먹을 몫과 아들이 먹을 양을 구분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개인의식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과거 육지의 농촌지역에서는 가계관리의 주도권은 세대주가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주의 가계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제각각이거나 부인이 총수입의 관리자가 되는 가정이 많다. 부인이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타서 쓴다는 개념이 희박하다. 오히려 남편이 생계 책임자로서의 의식이 약하고 부인이 더 책임감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계비 부담이나 관리에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도 제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살아가는 과정에 부모의 특별한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가족생활에 시부모가 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제주 가계는 부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부조도 부부, 부모자녀 각각 따로 한다. 과거에는 부조의 내용도 주로 곡식으로 한다던가, 또는 인력제공, 예를 들어 물 부지(물 부조)라 해서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던 시절 허벅(물동이)으로 물을 길어다 주는 것은 큰 부조 중의 하나이다.

육지와는 달리 자식이 결혼 후에는 분가하여 핵가족을 형성하므로 장남이라 할지라도 기혼자식과 부모세대 또한 부조를 따로 한다.

---

36) 제주도(2001), 전게서, pp.44-47.

즉 부모의 집과 자식의 집이 각자 알아서 부조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들테면 동네의 한 집안(B)에서 혼례를 치르게 되거나 상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웃 집(A)의 부조는 <표 4>와 같다.

이와 같이 혼례와 장례 시의 부조 양상이 다르다. 잔치 때는 철저한 독립 부조가 나타나지만 장례 때는 여성은 개인단위로, 남성은 가족단위로 한다. 잔치에는 남편과 부인이 따로 부조를 받는다고 해도 한 집안의 부부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장례에서는 입장이 달라진다.

여성이 받은 부조는 여성이 갖게 되나, 남성이 받는 부조는 형제들이 공동으로 받은 것이므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남자 상주들을 중심으로 분배한다. 물론 집안에 따라서 분배 방식에 차이는 있다. 남성들의 가문단위 부조는 의례적 영역에서보다 남성적, 가문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미혼의 성인자녀가 독립적으로 부조하는 것은 스스로 번 돈을 따로 관리하여 각자의 몫을 분명히 하는 데서 가능한 것으로 경제적 독립이 일찍부터 확립된 데 따른 것이다.



<표 4> 부조 양상

구분	A 집안	B 집안
혼례식	남편 → 남편	
	부인 → 부인	
	미혼의 성인자녀 → 미혼의 성인자녀	
장례식	남편 → 시신 앞에 놓인 상위에 부조 봉투 한 개만 올리고 절한다.	
	부인 → 여 상주(모친, 며느리들, 기혼 딸들) 각각에게 부조	
	미혼의 성인자녀 → 생략경향	

자료 : 제주도(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도문화자료총서」 8, 제주도, p.50에서 재구성함.

여성들의 활발한 부조 활동은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들의 독립된 부조관행을 통해 집안 대소사에서 여성들의 책임완수가 가능하다. 부조를 해주는 것은 일종의 적금이자 보험의 성격을 띤다.

평상시 권당이나 이웃에 대한 부조는 장차 자신이 잔치나 장례 등 큰일을 치를 때 그에 대한 보답이 기대된다. 적금을 타는 것과 같은 장치가 되므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 부조 역시 마찬가지다.

음식을 장만해주고 물을 길어다 주는 등의 인력제공 역시 자신도 언젠가는 돌려받을 것이 기대되는 행위이다. 일종의 수눌음(품앗이)으로서 상부상조의 생존전략이라 볼 수 있다.

여성들이 부조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의 경제권, 결정권뿐만 아니라 실질적 생활의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37)</sup>

현재도 이런 부조 관행이 행해져서 부조로 인한 비용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말도 많다.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같은 생활단위를 구성하는데 굳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조는 일종의 이자 없는 적금이기 때문에, 즉 부조한 것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정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7) 제주도(2001), 상계서, pp.48-51.

### III. 결혼생활과 여성

#### 1. 혼례문화

##### 1) 사주고남과 이바지

통과의례의 주체는 개개인이면서도, 실상은 그 관습을 이룩하고 있는 집단의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성을 짊어진다.<sup>38)</sup>

제주의 결혼 풍습이나 가족생활은 한국 전통가족의 모습과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가부장제 사회이면서도 실제 생활내용에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컸다.

자녀가 혼인 적령기에 접어들면 부모들은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자녀의 혼사를 부탁하게 된다. 혼인은 반드시 중매인을 통해 성립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어서 중매인의 비중을 중시한다. 중매인은 연령이 지긋한 동네 유지격인 남성이 맡으며, 가능하다면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해 가는 사람, 자녀 복이 많은 사람이라야 좋다는 생각을 한다.

혼처가 다른 부락인 경우는 남자의 부친이 그 마을의 친구에게서 중매인을 소개받고 그 사람을 찾아가 주석(酒席)을 마련하여 중매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한다.

신부는 가문의 도덕성이나 명예를 중시하여 하인, 백정이나 무당가 같은 집안은 피하고 건강하여 일 잘하는 처녀를 선호한다.<sup>39)</sup>

신랑 측에서 신부감을 물색하여 신부 측에 청혼하는 과정까지는 중매인을 앞세우지만 신부 측에서 일단 구두 허혼이 있게 되면, 신부의 사주를 받는 절차부터는 신랑 부친이 직접 신부 부친을 만나 모든 일을 의논하며 진행시켜 나간다. 사돈간의 접촉이 때

38)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p.346.

39) 김혜숙(1993), 상계논문, pp.21-22.

우 절제되는 육지에 비해 직접 접촉이 빈번하였는데, 이는 유교원리의 지배를 덜 받는다는 측면과 더불어 마을내혼제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가가 평소에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중매인을 사이에 계속 놓아 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sup>40)</sup>

중매와 청혼 과정에서의 주축은 부친이 되어 부인과 의논하며 일을 처리한다. 부인이 배제되고 의논 범위가 당숙 정도까지 확대되는 육지의 동족촌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혼인은 가까운 집안 어른들과 부친이 주로 정하며 부친 사망 시에는 모친이 결정한다. 이때 모친도 가까운 집안 어른들과 의논을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문중보다는 모친이 갖는다.

신부 측이 허혼의사를 표명하면 중매인이 신랑부친과 함께 내방한다. 신랑부친의 첫 방문시 신부 집에서는 보통 술이나 음식 등의 접대는 하지 않는다. 혼사를 위한 최초 대면에 음식 대접을 하면 ‘새(잡귀)’가 붙어 혼사가 깨진다는 속설 때문이다. 이는 신랑감의 첫 방문에도 적용되어 오늘날에도 지키는 집안이 있다.

한국 전통혼례에서는 신랑감의 사주단자를 신부 집에서 받아서 택일하고, 혼인 일자와 납폐월일을 적은 연길단자를 신랑 집으로 보낸다. 그러면 신랑 집에서 혼서와 폐를 함(봉채함)에 넣어 혼인 전날 밤에 신부 집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그 순서가 이와는 반대로 진행된다. 신부 측의 사주를 신랑 집으로 보내고 신랑 집에서 사주를 ‘고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궁합을 보는 것이다. 일단 사주가 전해지면 혼인의 성사 여부는 궁합에 달려 있게 되고, 그 결과에 따른다. 함도 흥세함이라 부르며, 혼인 당일 신랑 일행이 가져간다.

궁합을 봐서 서로 맞지 않다고 하면 신부 쪽에 사주를 되돌려주게 되고 이로서 그 혼인은 성사되지 않고 없었던 일로 원점 회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궁합을 보기 전에 “친심”이란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 친심이란 신랑될 사람이 신부될 규수를 보러 가는 것으로 선보는 것과 흡사하다. 친심은 일정한 형식이 없다. 여가(女家)에서 “총각을 한번 보고 싶으니 아무 때고 한번 놀러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

40) 김혜숙(1993), 상계논문, p.22.

총각이 슬그머니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중매인과 함께 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간다고 예고하고 가는 경우는 없다.<sup>41)</sup>

궁합이 맞고 좋으면 혼인 날짜를 정한다. 혼인 날짜는 1~3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정해지는 일이 보통이다. 경제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그다지 없던 시절이라, 잔치에 드는 물종을 자체 생산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개 자녀의 혼기가 되면, 혼례식 잔치에 쓸 돼지는 집에서 미리 사육한다. 택일하는 사람에게는 혼인 일자나 출행과 도착 시간 등 절차상 지켜야 할 시간까지 의뢰하여 정하며 이를 엄격하게 지킨다. 정해진 시간을 잘 맞추어 시행해야 화를 막고 복이 들어온다고 믿는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택일이 되어 혼인일자가 결정되면 신부 집으로 막편지를 가져간다. 막편지는 사주가 맞아 혼인 성사를 알리는 편지로서 택일(혼인일자)을 정식으로 통보하는 서식이다.

막편지 전달은 보통 중매인과 신랑 부친 또는 신랑이 같이 가기도 하고, 신랑집 근친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막편지 전달이 일종의 약혼식으로 간주될 때는 양가 모두 참석 범위가 넓어진다. 약혼의례에 해당할 경우에는 돼지다리, 술 한되, 쌀 한말과 신부의 옷감 한 벌 등을 마련한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막편지를 주고받은 후부터 양가는 정식 사돈관계를 맺은 것으로 여기며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사돈으로 부르게 된다.

잔칫날이 다가와 가면 혼인에 필요한 음식물을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데 이를 이바지라 한다. 이바지를 보내는 것은 딸을 데려오는데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예물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제주의 남성들은 어로 작업이나 출륙을 하다가 바다에서 죽는 일이 많았다. 결국 여성들이 밭농사나 물질 등으로 직접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으므로 여성들의 노동력과 생계유지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바지를 많이 받을수록 신랑 쪽이 부자이며 권세 있는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라 여겨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나, 차츰 이바지를 받는 것이 신부 측의 가난함을 들어내

---

41) 최재석(1984), 전계서, pp.112-113.



거나 또는 딸을 파는 격이 낮은 집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차츰 신부 측에 이바지를 사양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바지 관행은 1900년대 초기까지 보편적으로 시행되다가 1950년대 이후 서서히 사라진 듯 하다. 근래에는 이바지가 없어지면서 혼인식 날 신부 집으로 갈 때, 집안에 따라 쌀 한말, 술 한되, 돼지다리 한개 등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 풍속의 잔존으로 보이며 동서나 시누이 등이 가져간다.<sup>42)</sup>

제주도와 달리 육지에서의 이바지란 ‘정성들여 음식을 준비하다’ ‘이바지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양가에서 큰상을 차리고 이를 사돈댁에 보내는 풍습을 말한다.<sup>43)</sup>

이바지음식의 본래 의미는 새 식구가 왔음을 시댁 사당에 고하는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신부가 마련하는 것으로서, 성심껏 시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자 친정 어머니의 솜씨와 정성을 담아 시댁에 보내는 의미 있는 음식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하는 의미로 이바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바지 음식엔 그 집안의 안목과 가풍이 그대로 드러나기에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대부분 신부가 신혼 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처음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육지와 제주도의 이바지 관행이 다른 것은 여성에 대한 대우에서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 2) 가문잔치와 사돈잔치

제주도에서는 결혼을 위한 잔치가 연4~5일에 걸쳐 행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42) 제주도(2001), 전계서, pp.18-21.

43) <http://blog.naver.com/athenate.do?Redirect=Dlog&Qs=/athenate/60002644643>

<표 5> 잔치 과정

구분	행사	대상
결혼일 2일 전	뚝잡음	양가
결혼일 1일 전	가문잔치	양가
결혼일	잔치	양가
결혼일 1일 후	사돈잔치	신부집
결혼일 2일 후	사돈잔치	신랑집

자료 : 최재석(1984), 「제주도의 친족조직」 p.116에서 재구성함.

육지에서 장가가는 날에는 신부 집서, 신부가 신랑 집에 오는 날에는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대하여 제주도에서는 결혼전일의 가문잔치, 결혼일의 잔치, 결혼후일의 사돈잔치 등 양가에서 세 번씩 합계 여섯 번이나 향연이 벌어져 그만큼 축제의 분위기가 육지보다 더하였다.

결혼인 2일 전에는 “뚝 잡는 날”이라고 하여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돼지를 잡고 간단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기는 날이다. 이날은 잔치라기보다는 돼지를 미리 잡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들이 모이게 되고, 고기와 술을 나누어 마셨다.

결혼일 전날은 양가에서 각기 가까운 친척들이나 동리의 이웃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식 날에 사용할 음식을 장만하고 제반 준비를 하기에 분주하다.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친한 친척들(부계친과 모계친)이 마련한 음식과 간단한 주연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문잔치이다. 가문잔치는 제주도의 독특한 결혼 양식의 하나이다. 친척들이 부조를 하고 결혼준비와 축제에 동석동락하며 공동음식을 행하는 가문잔치는 친척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 가문잔치는 사돈잔치와 함께 친척간 사돈간 결합과 나아가서는 마을사람들과의 유대결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근래에는 가문잔치날에 동네사람들이나 당사자들의 친구들이 와서 음식을 대접받고 부조도 한다. 오히려 결혼당일보다 이날에 축하객이 더 많고 분주하다. 마을사람들은 결혼날에는 참여치 않더라도 가문잔치날 만든 부조를 들고 반드시 찾아온다.

잔치 다음날은 “두벌 잔치” 또는 “신부집 사돈잔치”라고 하여 신랑신부와 신랑 부친

이 신부 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한다. 신랑과 신랑부친은 당일로 돌아오고, 신부는 친정에서 하루 묵은 다음날 신부부친은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와서 인사를 나누고 돌아간다. 이것은 “신랑 집 사돈잔치”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결혼식은 보통 4~5일에 걸쳐 진행되며, 친척들이나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잔치도 결혼 전날의 가문잔치와 결혼당일의 잔치로 2일간에 걸친다.<sup>44)</sup>

잔치 중심의 혼례를 통해 동네사람들이나 친척들과의 유대가 깊게 다져질 수 있었다.

### 3) 혼수

지난날 제주 여인들은 시집갈 때 필요한 혼수를 스스로 마련하곤 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바닷가 마을인 경우는 사시사철 바다에 뛰어들어 물질을 함으로써 야무지게 푼돈을 모아 혼수를 마련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갓모자·갓양태·탕건·망건을 짬으로써 혼수감을 사들일 경비를 비축했다. 더욱이 바닷가 마을의 처녀들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일본이나 중국, 또는 블라디보스톡 등 동북아시아 일대로 바깥물질을 드나들으로써 돈벌이를 억척스레 하고 제 혼수감은 부모에게 기대질 않고 스스로 마련하곤 하는 예가 흔했다. 바깥물질 외로 방직공장에 나가 일해서 혼수비용을 비축했던 사례도 흔했다. 이는 지난날 제주 여인들의 야무진 삶의 방법이요, 꾀꾀한 삶의 보람이기도 했다. 세태의 흐름에 따라 오늘날에는 혼례가 치러질 때에 신부 측의 혼수 마련이 신부의 가정으로서의 큰 부담이다. 이는 통과의례의 폐습으로서 가당치 않은 사회 문제로 논란이 일곤 한다. 예전 제주도 내에서의 신부 측 지참물은 아주 간소했다. 검소와 실질을 숭상하는 제주민의 삶의 방법으로 풀이된다.<sup>45)</sup>

전통적인 신부측 혼수를 살펴보면 <표 6>다음과 같다.

44) 최재석(1984), 전계서, pp.116-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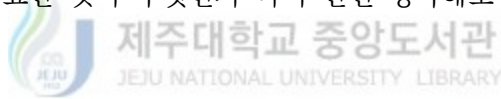
45) 제주도교육청(1996), 전계서 pp.355-356.

<표 6> 혼수의 변화

시 기	품 목
1910년대	이불 1채, 누비이불 1채, 요강 1개, 빗집 1개
1920년대	이불 1채, 짚방석 1개, 빗집 1개, 누비이불 1채, 요강 1개
1930년대	이불 1채, 요 1채, 짚방석 1개, 빗집 1개
1940년대	이불 2~3채, 요 2~3채, 방석 4~5개, 이불床, 1개, 경대 1개
1960년대	이불 3~5채, 요 3~5채, 이불床, 1개, 이불장 1개, 화장대 1개, 방석 4~5개, 화로 1개, 솔 3~4개, 세숫대야 1개

자료: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p.356에서 재구성함.

위의 혼수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고, 더 필요한 것은 살면서 장만을 하였다. 오늘날 혼수 문제로 부담과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 2. 고부관계

혼인직후 장남이라 할지라도 분가하며, 심지어 한 울타리 안에서 동거하더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두 살림으로 구분하여 살아간다. 서로 부엌과 광을 달리하여 취사를 따로 하므로 경제적으로는 동거가족이라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관념이 육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현실이다.

한 울타리내의 안거리와 밖거리에 살 때조차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며느리는 자신의 일을 위해 그냥 지나쳐 간다. 또한 같은 동네에 떨어져 살 때에 시어머니가 자식의 집에 와도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서너 마디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 일도 매우 흔한 일로서 제주의 고부관계, 제주 여성의 시집살이는 육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노동요 중에는 시집살이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 상당수 있

다. 역시 부계가족에서의 며느리와 시집식구와의 관계는 부정적 측면이 보다 강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러나 육지 여성의 시집살이와 제주 여성의 시집살이의 표현을 같은 맥락에서 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제주 여성의 시집살이는 육지의 여성들처럼 시집에 들어가서 사는 상황에서의 어렵고 고달픈 것이기 보다 ‘시집을 간 이후의 살림살이’의 고됨을 의미한다. 시집을 가기 전에는 친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생산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집을 가는 순간부터 살림살이는 여성책임의 경제체제이므로 고달프고 힘들고 서럽다는 뜻이지 시집식구로부터 어떤 구박이라는 측면은 육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그 강도가 약한 것이 현실이다.

고부간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시어머니나 며느리 모두 불만의 강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육지의 가족에 비하면 대체로 갈등이 심각하게 일지는 않고 있다. 고부간의 태도에 있어 철저한 분가주의, 경제적 및 정신적인 독립의지 등이 나타나 강한 제주 여성의 의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여성의 시집살이가 고달프다는 것은 시집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시집을 간 자신의 핵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고달픔의 의미가 더 큰 것이라 해석되는 것이다.

기혼여성이 손아래 시누이나 시동생에 대해서는 아가씨, 도련님 등 경어로 호칭하는 육지와는 달리 친정 동생처럼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새 며느리가 시동생과 손아래 시누이의 이름을 친정에서 동생을 대하듯 직접 부르는 것을 보더라도 며느리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경칭을 써야 할 기준이 되는 것은 형제서열(연령)뿐이다.

직계가족을 형성하여 시집식구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제 각각 독립된 영역이 확보되어 있는 비교적 수평적 가족관계인 사회이다.

육지가족처럼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며,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존대하지 않고 이름을 직접 부르는 상황에서의 시집살이는 육지와는 분명 다른 차원이다. 무책임한 남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지, 시부모에 대한 시집살이의 고달픔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sup>46)</sup>

---

46) 김혜숙(2001), 상계서, pp.48-51.

본인도 제주도에 살고 있고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평상시 아이와 함께 시댁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난 뒤 설거지를 하려하면 시어머니께서 “너희 집에서는 네가 하고 우리집에서는 내가 하기로 하자”면서 설거지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하신다. 물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같이 일을 한다.

대부분 분가하여 살 뿐만 아니라, 독립의지가 강하고 살림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딪칠 일이 적다. 그렇다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약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합리적인 생활 방식의 결과로 보아진다.

### 3. 첩제도

#### 1) 첩의 존재 요인

현존하는 고문헌의 기록들에 의하면 17세기 초에 보편적으로 첩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오래된 관행임을 보여준다. 섬이라는 환경적인 조건은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따른 심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첩살이를 유도하게 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첩살이를 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이혼 후 첩이 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으나 처녀의 신분으로 첩이 되기도 한다. 현재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첩의 존재가 보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50대로 내려와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심한 성비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첩을 얻어서라도 아들을 얻겠다는 사고방식의 변화, 그리고 5·16 이후 첩에 대한 개혁운동 등 일부일처제의 제도적 확립에 따른 근대화 시기 이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첩이 될 당시 친정부모의 태도를 보면 목인 내지 체념한다.

남성이 첩을 얻는 것과 여성의 첩살이 목적은 서로 다르다. 남성은 아들을 원하거나 또는 쾌락을 위해서이다. 반면 여성은 대부분 의지할 상대를 찾아서거나 또는 든든한

기둥인 아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득남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후 제사봉양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죽어서 조상으로서 물 혼적(물 한모금)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재사를 지내줄 아들 확보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농촌의 고령층 여성들에게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면, 남편을 장가들여서라도 첩을 얻겠다고 한다. 첩을 얻거나 양자를 데려서라도 대를 잇고 재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다. 첩을 구하겠다는 것은 속상하기는 하지만, 남편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은 자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조상에 대한 도리라는 것이다.

제주 여성들 또한 아들에 대한 집념은 한국의 전통가족에 못지않다. 강한 생활력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믿고 의지할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나타낸다. 독립심이 강하면서도 어떤 정신적 지주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잠재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설사 남편은 없더라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곧 남성 우월 이데올로기의 지배 결과로 보인다. 여성은 일이나 하는 존재이고 남성이 집안이 기둥이라는 가부장제적 관념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제사 봉양을 위한 후손의 확보는 곧 의례적 영역에서 남성이 절대적 존재로 자리하는 것이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즉 남성이 없는 여성의 홀로서기는 현재의 고령층 여성에게는 상상 밖의 세계였던 것이다.<sup>47)</sup>

다음의 사례는 첩을 두었거나 첩이 되었던 사람과의 면접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다. 이를 통해 첩이(을) 될(둘) 수밖에 없던 사연이나 그들의 삶에 대하여 조금은 알 수 있었다.

#### <사례 1>

첩을 둔 당사자(A씨)와 직접 인터뷰하기가 쑥스러워서 그의 며느리(제주시 일도 2동 거주, 44세, 여)를 면접하였다.

A씨는 현재 85세로 제주시 일도동에 거주하는 광모씨다. 그는 스무 살 때 여섯 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본인의 의사보다는 집안어른들이 정한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인지 별로

47) 김혜숙(2001), 상계서, pp.63-65에서 요약.

정이 없었다.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를 낳고 난 후부터 바람을 피웠다. 두 번째 부인이 생기면서 거처를 옮겨 살았으며 사실상 본부인과 다름이 없었다. 남편에게 두 번째 부인이 생겼으나 본부인은 이혼은 하지 않고 아예 체념하고 살았다. 그 후에도 A씨는 계속하여 바람을 피웠으며, 여자들 사이에 아이들이 생겼다. 특이한 것은 호적에 동거인으로 올라있는 여자가 4명이나 생겼는데도 3번째 부인부터는 거처를 옮기지 않았으며, 여전히 본부인택에도 드문드문 방문하여 본부인 사이에 6남매, 두 번째 부인 사이에 3남, 세 번째 부인 사이에 1남 1녀, 네 번째 부인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자녀들 사이에 같은 연령인 사람도 있다. 둘째 부인만 A씨와 생활했고 나머지 부인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과 생활했으며, 네 번째 부인은 아이를 둘째 부인에게 맡기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두 번째 부인은 처녀로, 세 번째 부인은 본남편과 사별한 후에, 네 번째 부인은 파혼 후 A씨를 만났다. 부인들 가운데 가장 속상해 한 사람은 둘째 부인이었다. 그 모든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A씨의 경제력이 상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 번째 부인까지도 사별하고 몇몇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다.

#### <사례 2>

B씨(제주시 건입동 거주, 78세, 여)는 남편과 11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서 건입동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들을 못낳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맡아먹은 것도 아닌데 남편이 첩을 두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본인은 19살에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잉꼬부부였다. 30년 전 거처를 제주시로 옮기기 전에는 구좌읍에 살았는데 농촌에 살면서도 김을 매지 않았을 정도로 남편의 위함을 받으며 살았다.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는데 넷째를 낳고 난 후에 첩을 두었다. 첩을 둔 이후 본처가 바가지를 마구 긁어 대서 집을 나가 첩과 계속 생활하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본처에게로 왔다. 물론 제사 명절은 본처가 했고 그럴 때마다 며칠씩 본처택에서 지냈다. 남편과 첩사이에 1남 1녀가 있고, 집안이 큰일이 있을 때는 첩과 그 자녀들이 와서 돕기도 한다. 처음의 원망도 세월이 흐르면서 체념하게 되고, 지금은 본처의 자식들과도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집안의 대소사 때는 처첩의 자식 사이에 차이가 없다. 첩은 아직도 구좌읍에 살고 있으며, 남편의 제사 때는 본처의 아들 집에 오고 있다. 처음에는 본처의 자식들이 발길도 못하게 하는 등 갈등이 많았다. 그러나 주변 친족들이 첩을 둔 사람이 혼자뿐이냐며 이왕에 벌어진 일이고,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자주 설득하자 마음이 풀어졌다.

B씨의 남편 역시 목장을 경영하여 재산이 많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대식구를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큰 손자한테까지 재산을 물려줄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 반면에 첩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첩이 됨으로서 형편이 나아졌다.

어떤 사유에서든 첩을 두었거나 첩이 된 사람들은 서로 속상했던 것은 사실이다. 남 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첩제도 때문에 또 하나의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 2) 첩의 사회적 지위

첩의 호칭을 통해 그들의 지위를 살펴보자.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첩’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 ‘죽은 각시(작은 부인), 죽은 어멍(작은 어머니), 누구의 어멍’ 등으로 불린다.

본처는 첩에 대해서 ‘아시’, 첩은 본처에게 ‘성님(형님)’이라 하여 형제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첩에게 ‘새어머니, 죽은 어머니’라고도 한다. 결국 본처에게 붙여지는 ‘큰 어멍, 큰 각시, 큰 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죽은 어멍, 죽은 각시, 죽은 집’이 되고 있다. 친척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본부인과 첩 사이에 ‘큰’, ‘작은’으로의 구별만 있을 뿐이다. 호칭체계에서는 본처와 첩과의 차별을 크게 두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첩을 얻어 판살림을 차리고 있다 하더라도 명절이나 제사 등은 본처가 사는 집에서 지내고 있어 정실부인이 가지는 기득권이 존중되고 있다. 가문의 전통과 가업의 계승은 어디까지나 본처에게로 이어진다. 첩은 임시적이고 주변인물에 불과할 따름이다.

아들을 위해 본처의 양해 하에 첩을 얻는 등 처첩 사이의 갈등이 비교적 약할 때는 제수준비를 위해 첩이 본가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온다.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차이나 차별은 못 느끼지만 대표권 행사에는 첩은 역시 부수적 인물로 격하되는 설움을 받는 것이다.

본처나 첩이 사망했을 때 처첩의 자녀 구별 없이 모두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된다. 장

례식 절차나 묘지의 규모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묘지의 위치는 대개 남편과 본처가 합장하거나 쌍묘를 한다.

차별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첩은 정처의 지위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봉제사 문제도 본처가 사망했을 때 자식이 없다면 첩의 소생이 제사를 지낸다. 마찬가지로 첩이 사망해도 슬하에 아들이 없을 때는 본처의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곧 본처나 첩이 사망하면 처첩의 구분 없이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본처나 첩 사이에서 열상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부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첩 모두 고령층이 되었을 때 첩에게만 아들이 있는 사례에서도 아버지의 본처인 큰어머니를 먼저 부양하고 있어, 본처의 지위는 확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제주의 첩 관행에서 나타나는 성격은 육지 양반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지위의 열세가 덜하고, 차별의식이 적다는 것이지 본처와 동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정식으로 재혼하지 못했을 때 첩이 되어서라도 자신의 신분을 안정시키려 하고, 첩의 신분으로나마 아들을 획득하려는 바탕에는 제사를 받는 조상의 위치를 지키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sup>48)</sup>

과연 시앗은 적인가, 동지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속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씨앗은 고팡 매경 텅기곡, 동센 못 매경 텅긴다.

(시앗에게는 광을 맡겨서 다니고, 동서에게는 못 맡겨서 다닌다.)

씨앗은 동세보단 낫다.

(시앗은 동서보다 낫다.)<sup>49)</sup>

이 속담은 아이러니하다. ‘씨앗(시앗)’이란 한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원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향상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고팡(곶간)은 한집안

---

48) 김혜숙(2001), 상계서, pp.65-67에서 요약.

49) 제주도(2001), 전계서, p.134.

에서 여성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힘의 상징이다. 그런 공간을 동서보다도 원수 사이인 시앗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동서 사이란 어떤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여성이 한 집안으로 시집와서 만나고 서로 맞추며 일생을 살아가는 관계이다. 그런데 동서 사이가 나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각자의 가정을 꾸미기 때문이다. 형제간이지만 서로 경쟁관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앗은 비록 두 여성의 신분이 다르고 원수가 될 수 있지만 한 남성을 구심점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덜하다. 한 남편의 주머니돈으로 서로 살아가는 관계이다. 그래서 공간을 맡겨도 떼어먹지 않고 잘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 4. 이혼과 재혼

### 1) 이혼

#### (1) 동태적으로 본 이혼 추세



과거 제주에는 무속신앙이 성행하여 지금도 당신을 모신 ‘당’이 마을 곳곳에 존재한다. 이 무속신화의 줄거리를 제주에서는 본풀이라 일컫는다. 본풀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송당 지역의 본풀이를 보면 이혼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남신 ‘소로소천국’과 여신 ‘백줏토’가 혼인하여 아들 7형제를 낳았다. 여덟째를 임신했을 때, 妻神이 농사짓기를 권유하자 ‘소천국’은 밭을 갈다가 배가 고파 밭 갈던 소와 남의 소를 잡아먹는다. 이를 안 처는 “소도독놈이 아니냐, 살림을 분산하자”하고 갈라선다. 夫神은 집을 나가 첩과 수렵생활을 한다.<sup>50)</sup>

부인이 이혼을 먼저 제기했고, 잘못을 저지른 남편은 집에서 쫓겨 나간다. 이혼 사유가 발생하자 부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때

50) 제주도(2001), 전제서, p.156.

결혼해 들어온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 집에서 대책 없이 나가고 있다. 신화에서부터 이혼의 소재가 등장할 만큼 제주의 이혼은 오래되고 보편적이었다. 백주할망이야말로 이혼의 원조가 된다.

시기별 이혼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방 이전

1945년 이전의 이혼에 관한 연구는 일제 식민지하의 특수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 볼 수 있겠으나 <표 7>에서 일제 식민지의 정점에 있던 1929년의 통계에서는 제주도가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濟州道)로 승격되기까지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영향으로 전라남도가 타도에 비하여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7> 각도별 결혼과 이혼 및 결혼건수에 대한 이혼건수의 백분율(1929년)

도별 구분	결혼	이혼	결혼건수에 대한 이혼건수의 백분율
경기도	18,018	988	5.5
충청북도	10,559	216	2.0
충청남도	14,434	358	2.5
전라북도	11,199	335	3.0
전라남도	20,320	1,012	5.0
경상북도	21,986	737	3.2
경상남도	11,609	668	5.8
황해도	14,522	906	6.2
평안남도	14,862	1,141	7.7
평안북도	16,234	656	4.0
강원도	16,537	451	2.7
함경남도	15,260	474	3.1
함경북도	6,183	79	1.3
총계	191,723	8,021	4.2

자료: 강병식(1994), “일제하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 실태 연구” 「한성사학」 6·7집 pp.48-49에서 재구성함.

◆ 1946~66

<표 8>에서 보듯이 1946~1966년 동안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 줄 뿐만 전국 평균의 거의 2~3배 이상이 될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46~59년(구민법 시대) 동안 혼인에 대한 이혼율이 전국이 3.0일 때, 제주는 6.3이었고, 1960~66년(신민법 시대) 동안에는 전국이 3.8일 때 제주는 7.7로서 제주의 이혼율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 전국의 혼인에 대한 이혼율이 5.78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제주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sup>51)</sup>

<표 8> 제주, 전국의 이혼율, 1946~66

연도	조이혼율		혼인에 대한 이혼율	
	제주	전국	제주	전국
1946	-	0.20	13.9	6.0
47	-	0.25	16.5	4.9
48	-	0.19	7.6	3.8
49	-	0.16	5.2	4.2
50	-	-	6.7	3.0
51	-	0.08	8.5	3.5
52	-	0.11	8.0	2.4
53	-	0.11	6.6	2.9
54	-	0.20	6.8	2.4
55	-	0.27	7.8	2.5
56	-	0.26	-	3.5
57	0.60	0.22	11.3	2.9
58	0.97	0.25	5.2	3.5
59	0.75	0.28	6.3	3.0
60	0.69	0.28	12.0	3.1
61	1.37	0.45	5.8	2.2
62	0.83	0.37	8.8	3.8
63	0.78	0.35	6.9	4.8
64	0.60	0.32	7.3	6.0
65	0.68	0.28	9.0	4.8
66	-	0.30	7.4	5.1

자료 : 권귀숙(1998), “제주도 이혼의 구조적 원인분석, 한국가족학회 p.141에서 재구성함.

51) 권귀숙, 제주도 이혼의 구조적 원인 분석, <가족과 문화> 제1호 p.140, 한국가족학회, 1998

## (2) 높은 이혼율의 요인

연구 결과 제주도의 이혼율이 타시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요인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의 경제적 자립성 내지는 생활력의 강인성을 들 수 있다. 여자의 생활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제주도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열악한 자연환경은 여자라고 하여 가사에만 전념하게 놓아두지 않았고, 전작농업에 대한 여성의 노동력 기여와 해녀의 역할이 경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 높은 경제참여도가 주부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강한 생활력은 이혼 후의 생활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혼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둘째, 제주도 핵가족의 성격을 들 수 있다. 핵가족 형태는 강력한 가부장권을 지닌 남성 중심의 가족보다는 수평적 관계에 기반을 둔 부부관계를 조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일상적 차원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우위에 서게 되고, 제주도는 대가족 특유의 강한 가부장권이나 부계친족의 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혼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족주의 가치관의 약화에도 관계된다. 한국의 전통가족은 가계계승과 부계친족집단의 결속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장남은 부모와 거주함으로써 가족의 창설과 확대, 축소, 해체의 과정이 분명하지 않고,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부계·직계·장남에 의해 계승되는 한국가족의 구성원리는 현실의 가족생활 속에서 개인에 대한 집의 우위성, 가장의 권위 확립, 부계친족집단의 조직화, 재산상속에서의 장남우대와 조상 제사의 장남 봉사, 부녀자의 낮은 지위, 정조관념의 강화와 이혼·재혼에 대한 금기의식 등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도의 가족은 차남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장남이 결혼한 후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다. 또한 가족 내에서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런 점도 이혼 사유 발생시 이혼을 쉽게 결정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성비 불균형과 인구 유동이 높은 점이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여성 인구가 남

성 인구보다 높은 곳이다. 제주도의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사건은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이러한 불균형은 가정의 안정성을 낮추고, 그 결과 이혼을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이혼과 개가를 허용치 않는 유교적 전통의 희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이혼에의 낙인이 약하였다. 이혼 후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이 덜한 것도 이혼율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유교적 가치체계에 의하면 처는 두 남편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편과 사별한 다 하더라도 평생동안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 서는 이런 전통이 없었기에 이혼과 재혼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혼은 배우자의 생존을 전제로 한 혼인 관계의 해소로서 이혼에 따르는 가족의 역할과 기능상의 문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족원에게 곤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의미와 결혼 존속의 필수품(Hunt and Hunt, 1977)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혼의 출구 없이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불행한 결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행복한 결혼생활로 대처하려는 희망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다(Lamanna and Riedmann, 1991).<sup>5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아무리 사회가 급변한다해도 가족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터전이다. 이 터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는 시각차가 있겠으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 및 사회 전체가 해야 할 것이다.

## 2) 재혼

제주도에서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혼율도 높고 사회적 기피현상도 희박하다.

---

52)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이혼과 가족문제」, p.14

첫 살림이 해체된 사람들 중에는 계속 혼자의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재혼을 하게 된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은 너무 고령이거나 생활여건상 상대방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든 사별이든 거의 재혼을 한다.

여자는 가사활동과 생업인 농업종사에 의하여 배우자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전작농업에도 여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가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도 여자 없이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sup>53)</sup>

재혼의 원인을 사별과 이혼의 두 가지 범주로 살펴보면 사별 후 남자만이 주로 재혼을 하는 육지의 관습과는 달리, 남자·여자 모두 대부분 이혼하면 재혼을 하고 있다. 여성의 재혼 시 재혼남자는 데리고 온 재혼녀의 자식과 자기자식을 차별하지 않고 부양을 한다.

여성들은 이혼일 때 대부분 재혼을 하나 사별일 때는 과부살이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과부살이가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밭농사 중심의 경제체제이므로 밭을 갈아줄 남편이 없는 과부는 동네 남성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봄이 되면 과부네 밭을 누가 갈아주나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숨죽이고 주시한다. 한 남자가 정해지면 비로소 동네 모든 남자들의 공격이 멈추게 된다.

설령 과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동네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의 되기는 하지만 시집에서 쫓겨나지는 않는다. 그냥 봉근동이(주워온 아이) 하나를 더 얻는 것일 뿐이다. 여성 자신도 그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단기간의 실수로 치부하고 마는 듯 하다.

이혼 여성들은 이혼 후 당장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많지만 재혼이나 독립 생활 준비기간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고, 결국은 독립해 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설사 친정에 있더라도 노동력이 강한 여성들이어서 정신적 의지일 뿐이지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은 적은 편이다.

이혼녀들은 그 동기나 사유가 어떠했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을 남편이나 자식만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할 수 없다는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혼 후

---

53) 최재석(1984), 전계서, p.182



에 재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라기보다 본인 자신이 재혼의 의사가 없는 요인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재혼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여성은 재산이 없어도 노동경제력이 강하므로 이혼이나 사별 등 초혼해체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곧 육체 자체가 재산이므로 건강하기만 하면 생활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심부름도 안하고 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여성도 상당히 많아서 남편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한 태도이다.

특히 자녀가 있을 때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자녀를 위한 마음과 더불어 믿고 의지할 아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생스럽게 재혼하느냐는 심리가 드러난다.

여기서 남편이 가정의 상징적 존재로만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자신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간섭이나 구속을 싫어하는 사고방식이 과부살이의 길을 고수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재혼한다해도 부모나 친척들이 자녀를 버리고 갔다는 비난여론이 없지는 않으나, 주위에서는 대부분 초혼해체자들의 재혼에 대해 호의적이고 또 권유하기도 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재혼을 용인하고 차별하지 않는 풍조를 엿볼 수 있다.

재혼하지 않고 과부살이의 길을 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것이겠지만, 재혼도 나름대로 새 생활을 찾으려는 여성의 강한 자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sup>54)</sup>

한국의 전통 가족에 비하면 느슨한 부처제이면서 남성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노동경제력을 지닌 제주 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 존중의 사고가 강한 사회이면서도 이혼에 있어서는 여성의 독자적 결정권과 독립성의 측면 또한 만만치 않게 나타난다.

혼인 결정에는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라는 가부장제의 속성을 나타내면서도 혼인하고 살림의 단위가 달라지면 부모의 통제나 관여가 거의 작용하지 않고 있다. 정신적인

54) 김혜숙(2001), 상계서, pp.60-63에서 요약

독립은 물론 철저한 자립생활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1950년대 중반 이전에는 극단적인 예로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혼인했으나 단순히 살기 싫어 시집을 나와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된 혼인이 아니라, 부모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상대방에게 정을 붙일 수 없어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부부간 심리적 안정성이 혼인생활 지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현상은 육지 가족에 비하면 놀라운 특성이라 여겨진다.

한 사례에서는 남편의 사망으로 재혼을 해서 일단 시집을 떠났는데, 그 재혼마저 다시 해체되자 본래의 첫 시집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례는 시조부가 젊은 손자며느리를 붙들 수 없다고 하여 “팔자를 고치라”고 재혼을 권유해서 내보냈고, 재혼에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시집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혼 해소 후 친정이 아닌 시집으로 회귀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자유스럽고 또 빈번하게 이루어져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암창개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전란 중에 출정하여 예정대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는 신랑 집에서 상객들만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모셔온다. 이를 ‘암창개’라 일컫는데, ‘암’은 여인, 곧 신부를 뜻하고, ‘창개’는 장가가는 뜻이니 곧 신부가 장가간다는 말이 된다.<sup>55)</sup> 이미 잔치를 치를 음식이나 준비가 완벽하게 마련되었을 뿐더러, 모처럼 택일한 날짜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변형으로 치러지는 혼례인 셈이다.

또한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이 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상제로서 근

55) 제주도교육청(1996), 전게서, p.357.

신하는 뜻에서 암창개가 치러진다. 이 때에는 혼례하는 당일 신부가 타는 독교위에 하얀 무명을 씌우고 신랑 신부의 예복 역시 유색을 삼간다. 혼례가 치러지는 날, 신랑은 가만히 방에 앉아 있으면 상객과 하인들만이 가서 신부를 데려 온다. 신부는 신랑 집에 오자마자 상복으로 갈아입고서 제상에 배례하고 난 다음에 신부로서의 밥상을 받도록 하는데, 하객들의 참례나 접객은 일반적인 잔치 때나 마찬가지로이다.

신랑이 귀가하지 못했거나 복중(服中)이어서 부득이 암창개를 치르고도 탈없이 순조로운 살림을 사는 예가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에 암창개를 치른 사람과 면접을 하기 위해 수소문해 봤으나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대신에 암창개를 치른 사람의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제주시 일도 2동 거주, 75세, 여)을 만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웃 마을에 아주 잘 사는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의 아들이 혼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날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부자택은 아들의 병이 장기화되자 총각귀신을 만들기 않기 위해 집안이 가난하지만 정숙한 여자를 골라 넓은 밭을 여자 집에 주고 대신에 신부감에게는 아들이 아픈 사실을 숨겨서 혼사를 치르기로 하였다. 혼인은 암창개로 치러져 신랑 없이 신부가 신랑집으로 갔다. 보름이 지나도 신랑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시부모가 마을에 불일이 있다면서 집을 잘 보라는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신부는 모르는 집안 구석구석을 익힐 겸해서 여기 저기 살피다가 바깥채에 홀로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누구인지 물었는데 바로 자신의 신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결과 병이 완쾌되어 7남매를 낳고 별 탈 없이 잘 살았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은데, 암창개는 혼인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가하지 못했거나 친상을 당한 경우 이외에도 신랑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도 성립되었던 것 같다.

## IV. 결론 및 제언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모진 환경과 짓궂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땅은 메마르고 논은 드물고, 돌맹이는 지천으로 깔리고, 바람은 거세게 불고, 뿐만 아니라 버거운 부역과 관리들의 간악한 횡포, 왜구와 몽골의 무자비한 침탈, 오랜 세월을 걸친 과중한 진상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런 모진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주 사람들 특히 제주 여성들의 생활양식을 되새겨 보는 일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후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환경과 지리적 특성으로 제주도에서는 일찍부터 여자가 밭농사와 잠수 등으로 생산 활동을 주도하였고, 한 울타리 두 살림과 같은 분가제도, 마을내혼, 외가친족과 처가친족과의 긴밀한 관계, 본토와 다른 혼례문화와 고부관계, 첩제도, 암창개 등의 독특한 여성문화를 형성하였다.

칠성판을 등에 지고 저승길을 오락가락하면서 거친 파도를 다스려 온 제주해녀들의 삶은 제주 여성들의 근면·개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여성중심의 생활 단위의 분리는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생활 단위를 분리하면 그만큼 간섭과 통제가 줄어들어 고부간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제주는 각성바지 마을이 많아 마을혼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 부찌사돈이 생기고, 또한 사돈에 팔촌으로 걸린 켤당이 많다. 친척과 인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폭넓은 켤당을 형성하며 나아가 마을 내의 모든 사람이 친척이 아니더라도 동네어른들에게 모두 삼촌으로 호칭하면서 동네사람 모두를 하나의 켤당처럼 여기는 강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왔다.

혼인문화에서 청혼과 중매 과정에서 부친이 부인과 의논하며 일을 처리하는 것과 집안의 대표로서 사돈집에 참석하는 우시에 남성과 똑같이 여성도 참여하고 있는 점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우시로 외삼촌을 비롯한 이모 등 외가 쪽에서 동행하는 것도 부계친과 외척사이에 큰 차별 없이 대등한 자격임을 보여 준다.

또한 과거에는 혼수라고 해야 겨우 이불 한 채 정도였고, 새살림이 시작된 후 본인들의 힘으로 살림을 하나하나 마련하였다. 이는 오늘날 예단문제로 결혼 시초부터 서로 상처를 입는 것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제주의 축첩제는 제사봉양을 위한 후손의 확보 및 정신적 지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제주도 성비 불균형의 점진적 해소, 가치관의 변화 및 축첩 제도의 법적 금지로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땅이 메마르고 재해가 빈번했던 섬의 환경에서는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근면 질실하여 자립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터전인 산과 들과 바다 모두를 분주하게 오가며 살아야 했던 제주인들은 일년을 주기로 하는 농사철과 하루를 주기로 하는 물때(밀물과 썰물 시간)에 맞춰 생활주기가 짜여졌다. 농한기라도 제주사람 특히 제주여성들은 쉬질 않았다. 그들은 바다와 밭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들에서도 일했다. 그들은 작업현장에서만 아니라 일터를 오가는 길에서까지 취난연료(牛馬糞)를 담을 것에 주워 넣으면서 걸었다. 이와 같이 근면이 아예 체질화되어 버린 제주인들에게는 놀 새는 커녕 쉴 새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체질화된 근면성이 제주인들로 하여금 ‘게으름’과 ‘거짓’ 그리고 ‘빈곤’의 세 가지 악에서 벗어나게 했고, 또한 그것이 곧 자신을 모든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무의기개(無依氣概)의 ‘자유인’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sup>56)</sup>

바로 이런 문화유전인자를 잘 계승하여 나간다면 앞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의연하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제주 여성들, 제주인, 더 나아가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전통문화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계승·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

56) 송성대(2001), 전계서, p.87.

전통의 계승이란 자체가 해로운 것은 버리고 이로운 것은 이어가며 새롭게 적용하는 부단한 선택과 창조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전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선택하여 전승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리 교과에 향토 문화 단원을 두고 내용을 체계화하여 후세들에게 제주도의 전통문화(여성문화 포함)를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대의 문화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둘째, 전통문화와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정확대가족의 채택이나 제주의 전통 노동복인 갈옷을 실용화하거나 메밀로 만든 빙떡의 대중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지나친 상업 위주의 문화 축제를 지양하고, 체험 위주의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연과 역사, 생활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제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넷째,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내 고향의 구석구석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가 지녀야 하는 문화 정체성을 찾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대원(1973)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 권명아(2000),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 권태환·박영진(1993), 「한국의 가구 및 가족유형」, 통계청.
- 김진학(1994), 「가정의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 학문사.
- 김영돈(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 김영돈(2002), 「제주도 제주 사람」, 민속원
- 김옥희(1998), “한국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복지개발연구」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 합리적 공동체로서의 한국형 가족모델」, 지식산업사.
- 신행철외(1995) 「제주사회론」, 도서출판 한울
- 신행철외(1998), 「제주사회론2」, 도서출판 한울
- 안호용·김홍주(2000), “한국가족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 이득재(2001),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 정은(1998), “여성과 사회복지”, 「여성학의 이해」, 한국여성학연구회, 경문사.
- 제주도(1993), 「제주의 민속」, 제주도
- 제주도(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도
- 조혜정(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 한국의 여성과 남성 2」, 문학과 지성사.
- 주디스 S. 윌러스타인 외(2002)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양은모  
옮김, 명진출판

최재석(1984),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통계청(2004), 「2003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혼인·이혼편」.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한국사회문화연구원(1997), 「급변하는 한국의 가족관계 : 무엇이 문제인가?」, 한  
 국사회문화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편(2001), 『새로 짓는 우리집』 학민사.  
 함인희(2001), 「위기 속의 한국 가족: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한국산업사회학회.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일지사

#### <논문>

김병식(1994), “일제하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 실태 연구”, 한성사학회  
 고석중(1998), “제주 지역 주민의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  
 대학원  
 고순례(1993), “재판상 이혼에 관한 연구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구남숙(2002), “이혼 후의 자녀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권귀숙(1998), “제주도 이혼의 구조적 원인 분석”, 한국가족학회  
 권영미(2000),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김상용(1996),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법사회적 고찰 : 한국과 독일에서  
 의 이혼율 증가와 관련하여”, 한국가족법학회  
 김형선(1997), “배우자선택과정과 결혼의 질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 이혼 여성을 대  
 상으로”, 경희대 대학원.  
 김혜숙(1993),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박은수(1999), “이혼후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 대학원  
 송미승(2001),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중앙대 대학원



- 이태영(1981), 한국의 이혼율 연구,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현중(1998), “이혼 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성신여대 대학원
- 정진영(1992),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정자녀들의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인문사회과학론총.
- 주소희(1992), “이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 최규운(2002), 이혼제도에 관한 연구 :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관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1999), “이혼시 모(母)의 자녀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 <학회지>

- 권영자(1996), “한국가족의 당면문제와 정책과제”, 한국가족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가족학회
- 박부진(1999), “재판 이혼시 자녀 양육자 선정의 실태 및 문제점”, 가족과문화.
- 서영아(1999), “제2인생 쫓는 ‘이혼 남녀’ : 중년-황혼 이혼 늘고 결혼 3쌍 중 1쌍 꼴 ‘도장’... 재혼의 門도 당당히 두드린다”, 뉴스플러스.
- 한삼인(1984), “이혼 에 관한 연구 I ; 이혼법의 변천·내용·문제 ” 제주대논문집 (사회과학편)
- 한삼인(1985), “이혼 에 관한 연구 II ; 제주도 에 있어서의 이혼율과 재판상 이혼에 관한 실태분석” 제주대사회발전연구
- 한삼인(1996), “판례로 본 재판상 이혼원인” 제주대사회발전연구

<Abstract>

## **The Culture of Women in Jeju**

- With a Focus on Family and Married Life -

**Park Chung Hee**

Geograph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Sung-Dae**

Recentl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nces of Korea have been disappearing with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t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cultures and ideas, which have come to Korea through the process of its internationalization, have thrown Koreans into confusion. Given this situation it seems very worthwhile to investigate the traditional culture of Jeju, especially the culture of women.

The focus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women of Jeju and their culture. It investigates women's lives and culture by considering their family and married lives, and organizes the results so that they can be used in the future as teaching materials for traditional local culture.

To do so, this study consults documents recording women's family and married lives and then investigates social phenomena from the 1900s to the mid-1960s, right before Jeju started to be developed.

Jeju used to have a unique way of life because of its geographical conditions and the historical events which differed from those of other provinces. They led, particularly, to women's unique social positions and living conditions. For example, the initiative role women played in productive activities such as dry field farming and diving, the independence of married couples and their parents in spite of living

---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together in the same house, the marriage between male and female within a villag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relatives, the wedding ceremony and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the status of concubines, the system called *Amchanggae*, in which a bride had a wedding ceremony without her groom in extraordinary cases such as typhoons or the death of parents.

It may be natural that a variety of aspects of traditional culture have been weakening or disappearing as time goes by, but they should not be ignored completely. Rather, they should be taken over and improved. Taking over traditional culture is a constant process of choice and creation. So, what is suitable for present-day Jeju needs to be carefully considered and aspects of its traditional culture need to be improved.

To do this, a few activities are proposed:

First, subjects such as geography should deal with local culture. This will help give students an opportunity to learn their own local culture and reduce cultural distance between the young and the elderly.

Second, ways to make the old and the new coexist harmoniously should be pursued. A variety of ways can be considered, such as the adoption of a way of life which goes beyond the simple nuclear family to include extended family as well, and the popularization of *galot*, traditional working clothes, and *bingddok*, a bread made from buckwheat.

Third, instead of extremely commercial festivals, cultural events need to be regularly held, so tha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be able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the traditional local culture of Jeju. Not only will it increase our knowledge of our own nature, history and culture, but it will also strengthen our cooperative spirit and pride as natives of Jeju.

Fourth, natives of Jeju need to know and be able to explain every detail about Jeju with love and affection for their home province.

Finally, constant efforts to adapt the traditional culture of Jeju to modern society are needed. The spirit of Jeju must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treasure and a worthy guide through difficult times.

## 감사의 글

시작이 반이란 말을 절감합니다. 학교 일도 만만치 않은데 대학원까지 다니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였을 뿐입니다.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핑계거리를 만들어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께 시간 낭비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각 영역별로 항상 열심히 연구하시는 지리과 교수님들에게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교과서 분석에 눈 뜨게 해주신 손명철 교수님, 관련 자료를 챙겨주시고 논문 제목을 바꾸려 할 때 여러 아이템을 제시해 주신 권상철 교수님, 논문에 들어있는 용어를 바로 잡아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주시고 맞춤법까지 체크해 주신 김태호 교수님, 끝까지 격려해주심과 아울러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지도해주신 송성대 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다같이 가자”면서 다독여준 동기생들도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학기 3월 한 달 동안 학교 시간표에 매달려 논문을 쓰지 못할 것 같다고 엄살을 부릴 때 영문초록은 염려마시라고 선수를 치며 용기를 준 우리 학교의 막내 고영실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바쁜 와중에도 논문을 읽고 도움말을 주신 김두욱 선생님과 편집을 도와주신 한덕보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늦은 귀가 시에 아이와 집안일을 잘 챙겨준 남편과 엄마를 위해 하고 싶은 컴퓨터 게임을 접어두었던 아들에게도 고마운 말을 전합니다.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과 언니를 마치 동생 돌보듯이 챙겨주고 언제든 언니의 부탁을 마다 않고 들어주는 동생들이 있기에 세상은 이렇게 넉넉하고 아름다운가 봅니다.

2004년 7월